

한국서부발전 윈드 파워 3·3·3 프로젝트 ‘순풍’

한국서부발전이 최근 전남 장흥 육상풍력발전 건설을 마무리하고, 2030년까지 국내 육상풍력 300MW 달성을 위한 두 번째 걸음을 내디뎠다.

서부발전은 2030년까지 육상풍력 300MW, 해상풍력 3GW를 확보하는 ‘윈드 파워(Wind Power) 3·3·3 프로젝트’를 추진해 전체 신재생 에너지발전의 41%까지 풍력발전 설비를 끌어 올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15년 첫 육상풍력 사업으로 전남 화순군에 16MW급 풍력발전소(2MW급 8기)를 준공하고 이어 두 번째 독자 사업으로 장흥군에 18MW급 육상풍력발전소(3MW급 6기)를 건설했다.

서부발전은 장흥 풍력을 통해 향후 20년간 연간 4만6천MWh 전력을 생산할 계획이다. 1만6천 가구가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이다. 이로써 자체 육상풍력 사업으로 발전용량 34MW와 서남해상풍력(60MW) 지분 참여를 통한 7.5MW를 확보하는 등 약 42MW의 발전 설비용량을 보유하게 됐다.

또 공격적 투자를 통해 육상풍력 발전용량 확보에 나선다. 강원도 영월 에코윈드(46.2MW), 경북 군위 풍백(82.5MW) 풍력 사업에 각각 29%, 37% 지분을 확보한 가운데 내년 상반기까지 지분 참여를 통해 50MW 이상을 추가할 계획이다.

서부발전은 2030년까지 12GW 이상을 해상풍력으로 확보하겠다는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과 연계해 경제성 있는 해상풍력단지 개발을 위한 ‘국내 서·남해안 대상 고효율 해상풍력단지 개발’의 연구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1 한국서부발전 본사 전경 2 화순 육상풍력발전 단지

우선 서해 권역에서는 충남 태안 앞바다에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 단지를 조성한다. 서해권은 우수한 풍황 자원을 보유한 만큼 서부발전은 기점 인프라를 활용해 총 2.4GW급 신규사업장을 확보할 계획이다.

현재 안산 풍도(98.9MW)와 영광 낙월(38.5MW), 태안 학암포(200MW) 등 해상풍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 전남지역에 전남개발공사 등과 공동으로 400MW급 ‘완도 장보고 해상풍력사업’을 개발하고 있다.

박형덕 서부발전 사장은 “그린뉴딜의 선도기업으로 신재생 사업을 통해 상생 사업 모델을 확대해 지역사회와 동반성장을 도모하고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에 적극적으로 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❶



시대가 바라는 안전한 에너지



가족의 약속을 담아서
생명의 소중함을 알아서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그래서__ 서부발전이
당신 곁에 있습니다

시대가 바라는 안전한 에너지

새로운 시대를 여는 친환경 에너지 글로벌리더

WPD 한국서부발전 | 주

